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방치된 폐사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폐사지는 3천2백여개에 달한다. 경주 황룡사지나 강화 선원사지, 원주 거둔사지, 양주 회암사지, 여주 고달사지, 제주 수정사지 등 발굴된 몇몇 사지들을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낯선 사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문제는 마을 어귀나 산 등성이의 빈터로 남겨져 있는 이불들은 사지 관리에 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둔리사지나 박곡사지나 하는 식으로 불러지고 있는 이들 사지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 곳이 사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밭을 만들거나 묘지로 쓰는 등 훼손하기 일쑤다. 심지어 사지에 남아 있던 유물들은 놀러 온 관광객들이 주워가거나 마을 주민들의 생활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유지에 있는 원주 흥법사지의 경우 보존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땅주인과 가격으로 인한 마찰이 있어 남아 있는 탐과 탐비 사이는 고무마발로 되어버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지들만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몇몇 사지들만 간신히 돌보고 있을 뿐 지역 내 어둔 사지들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에서 <불교사원지> 상하권을 펴내며 전국의 사지 3천2백여 곳을 총망라해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치나 성보문화 유물 등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안한다면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이 사지 관리를 해야 한다. 종단은 자체적으로 분할사 제도를 활용해 교구에 위치한 사지를 돌보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담당자 소양교육 등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 박물관과 연계해 문헌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한 사지의 역사적 지위 등을 밝혀 발굴 관리에 따른 예산을 문화청으로부터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또 종단 협의회 등을 통해 불교계 전 종단이 각자 유관 사지를 돌보고 복원하고자 하는 의식개선을 하고 사지관리에 나서야 한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허공장회 안면암 개원-포교船 운영 낙도 포교 '뚝' 올랐다

낙도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1억 출연도

내년부터는 서·남해안 낙도포교를 위한 배(船)가 도서 지역을 순례하며 낙도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전달 및 의료 시술, 생필품전달, 불교포교등을 펼치게 된다.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 청계사주지)는 3일 황남성화 회장등 회장과 전 국조장들이 모여 회의록을 열고 7년전부터 준비해온 낙도포교를 위해 낙도포교선운영, 낙도청소년장학재단을 설립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교계의 낙도포교를 위한 '뚝'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됐다.

낙도청소년 장학재단 설립에 1차로 1억원의 재원을 출연한 허공장회는 올해 낙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허공장회에서 건립한 안면도 안면암 전경.

에 안면암(조실 해광)을 건립하여 98년 10월 정안사를 갖고 율해초 공식 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공식등록한 안면암은 대지 8백25평, 건평 5백평, 지상 4층규모이며, 1층은 공양처, 2층은 불자수련장, 3층은 소법당이 현대식으로 건립되고 4층에는 대웅전과 선원, 불경독서실이 정통사찰양식으로 완공됐다. 본관 옆에는 용광각과 삼성각도 들어서 있다.

안면암은 허공장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문보경화)가 직접운영하며, 매일 음력 7일 법사스님을 초청하여 기도 및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낙도포교를 위한 정진지도교원에 건립중인 안면암포교원을 올해내 개원한다. 안면암포교원에는 낙도포교 연락사무실과 회의실, 법당을 갖추게 된다. 안면암에서 열리는 법회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은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음력 7월 오전 7시이다. 011-730-2286(문사수) 019-281-2286(진여화)

회장 황남성화보살은 "지도법사 지명스님의 지도로 낙도도 지 어민들에게 불법을 전할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 10여대의 낙도포교선을 운영하여 낙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펼쳐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공장회는 75년 불교포교와 지명스님 마국유화 지원을 목표로 노보살들이 인력을 모아 창립한 단체로 국내에 144명, 미국 LA와 필라델피아에 4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칼럼 6면)

김현우 기자
(www.buddhapia.com)



○8일 상종스님 안내로 불국사를 참배하고 있는 권희로씨, 권씨는 남은 여생을 고국의 부처님품에서 가르침대로 회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사진=영남일보 제공)

"부처님 품서 봉사의 여생" 권희로씨, 자비사·불국사 참배 '삼중원' 설립추진위 현판식도 참석

'신앙'과도 같았던 어머니 대신 부처님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31년간 수행생활을 끝내고 지난 7일 고국에 도착한 권희로씨(71)는 이제 남은 여생을 부처님 품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회향의 삶을 살게 된다.

권씨는 귀국 3일째인 9일 '김의 전쟁'을 제작한 한진공업주식회사 한강진 회장이 주최한 만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씨는 "이런 불자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친필로 적어주면서 본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왼쪽 손목에 단주를 찬 권씨는 "절에도 자주 가서 예불도 올리고 부처님 뜻에 따라 봉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영우·천미희 기자

이런만 봉사(佛事) 어려운 할수합니다. 권희로씨

"승려노후복지지원 2001년 세운다"

조계종 복지재단 '추진안' 총무원에 건의키로

이르면 2001년에 '승려노후복지지원' 건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스님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5명(86.2%)이 승려노후복지지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복지재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일 교육원, 기획실 등의 관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승려노후복지지원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한편, 이를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 종단 집행부에 보고형식으로 건의키로 했다.

복지재단은 이번 보고내용에 대한 종단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 승려노후복지지원 부지를 선정하고 2001년 착공이 들어간다는 계획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립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어디에 어떤 형태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승가전체가 노후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연금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종헌 제116조에는 '승려의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노후복지 지원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건립요구와 계획이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해 분할사 주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승려노후복지대책'이 가장 시급한 종단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대이삼 건립을 미룰 수 없는 불사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나눔 9월 대법회 헌혈, 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9월 19일(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아울선린 안양분원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 (0343)472-3100(한아울선린)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에게
• 응모방법: 행사중 '현상공덕항'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항'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회)
• 1등: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10명 (문구갑스님 법음, 법매집 각 1집)
• 5등: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200명(법성계경말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항"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뉘십니다

• 현상공덕항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 판매원: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제조원: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동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Tel: (02)732-1522 • Fax: (02)737-0697
•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http://mail.buddhapia.co.kr
• Tel: (051)324-3731 • Fax: (051)324-3733

구입처
• 서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대구: 불광불교문화사 053)421-4768, 미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부산: 삼정원 051)646-6255, 미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6-5655, 대성불교사 051)332-0299
• 광주: 미하몰 광주지사 062)375-9986 • 대전: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전주불교신문사 062)282-7054 • 창원: 경남불교신문사 055)1296-8911 • 진주: 미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전국 유명불교 출판점 및 사찰내 유통점